



봉우컬럼

참견하지 마!

2주간에 걸친 하계산상집회를 마친 날, 어느 장로 부부가 찾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하여 욕심각심하다 시켓말로 열을 받아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참견하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장로의 말을 듣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맞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남이 싸논 똥에 넘어지는 사람이다. 남이 싸논 똥은 피해야지, 굳이 거기에 넘어질 게 뭐람. 자고로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간섭도 참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에는 동네 골목이나 마을 정자에서 어르신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많이 두셨다. 그러면 약방에 감초처럼 꼭 등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다. ‘아! 그건 아닌데...’ 한다. 그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다. “남의 일 참견 말고 너 가던 길이나 가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똑같이 세 번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신다. 그리고 장차 베드로가 순교 길을 가게 됨을 묵시적으로 말씀하셨다(요 21:18).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묻는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 말고 네 일이나 해라.’는 뜻이다. 그걸 깨달아서인지 베드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벧전 4:15)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잠언에도 경고가 나온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잠 26:17).

참견하려거든 책임질 각오를 하라. 괜히 오지랖 넓은 체하다가 남이 싸논 똥에 넘어지지 말고!

시작보다 끝을 함께 하는 자가 돼라

‘효(孝), 충(忠), 의리(義理)’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마음, 국가에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마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건지게 되었던 부모나 국가,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사랑을 끝까지 지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효자야, 충신이야, 의리 있는 자야’라고 말한다.

예전에 권전국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께 아부한다는 말에,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아부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아부의 대상이 형편이 달라져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

는 형국에서도, 국가를 건지기 위해 전신으로 나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충(忠)의 대명사로 부르며 역사도 그를 기린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는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셨다.

다윗은 효자였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의리의 사나이였고, 공의롭고 담대했으며, 은혜를 아는 자였다. 또한 주의 종을 잘 섬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이 설교를 주일예배에도 영상으로 다시

이 있다면 바로 다윗 같은 일관성이 아닐까. 나약한 인간이기에 도중에 미혹되어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다윗은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

“시작을 함께하는 자보다 끝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다.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남이 아부라 하건 말건, 그 대상을 위해 끝까지 일관된 마음을 지킨다면 그게 바로 충성이요, 의리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 곧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자 다 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새롭게 변화된 그의 제자들은 충성으로, 의리로 순교의 길을 갔다.

부모가 수레를 끌며 행상을 하든 그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효자라 칭했고, 나라가 전란에 휘말려 다 멸망해가

보여주셨는데, 이시대 목사님은 마무리 말씀으로 다윗은 그 일곱 가지 덕목을 끝까지 실천한 사람이었다고 정리해주셨다. 효자라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요, 책임감 역시 맡은 일을 끝까지 맡아 완수하는 것이며, 의리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아들 므비보셋을 끝까지 돌보았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깊이 간직하고 살았다. 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음을 그의 삶이나 시편에 절절하게 기록되어있는 신앙고백을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

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3).

열매를 따는 자는 씨앗을 뿌린 자가 아니라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자라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시작할 때 확실하다 믿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다윗을 본받아, 목사님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에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보자.

한은택 목사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8월 26일(월) ~ 10월 4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3:21~23)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쓰셨을까

“그(아브라함)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약2:23).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벗, 곧 친구라 칭하시며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18:17)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친구끼리는 숨기는 것이 없거든요(요15:15). 이는 무한 신뢰를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마22:32).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마음이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딱 맞는 것이 어려울진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다니 부럽고 놀랄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딱 맞는 다윗을 통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울타리를 헐 때는 울타리 칠 때를 기억하라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유독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전제된 것입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특출난 사람이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을 허락하신 것이니, 이보다 큰 은혜가 없지요. 그것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나이인 10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열국의 아버가 된다’는 약속을 믿는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비

롯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사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역시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상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울을 이을 왕을 택하러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말째 다윗을 아예 제쳐두었습니다. 후보에도 오르지 않을 만큼 여리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맘에 두시고 그를 택하셨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했습니다. 그 예로 다윗은 하나님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의 법 제가 성에 들어올 때 너무 좋은 나머지 춤을 추다 바지가 내려가서 그만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본 아내 미갈이 체통 좀 지키라고 지적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6:21).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습니다. 은혜를 물에 새겨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다윗처럼 심비(心碑)에 새겨야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빛진 자로 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시116:12~14).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될 잘해

서, 잘 나서 하나님이 택하사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3~6).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저를 택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낱 농사꾼의 자녀요, 세상을 좋아해서 죄 중에 있던 저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욱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저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은혜를 받아본 자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

지다 보니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창13:9). 다윗도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이전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었거든요.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내서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다 주었을뿐 아니라 왕자의 신분으로 신분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했을 정도로 웅숭히 대접했습니다(삼하9:7).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쁨 부으신 왕에게 절대 손대지 않았고, 사울을 죽인 자를 칭찬하는 대신 죽여버릴 정도로 깊이 은혜를 새기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압살롬을 피해다닌 것도 아비 이전에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한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온 것도 예전에 미갈이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다윗을 도망치게 한 사건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삼하3:14~16).

하나님의 은혜를 심비(心碑)에 새겨라

저도 저와 함께 예수중심교단을 일군 자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도와 일하는 주의 종들과 해외선교팀, 직원들, 저를 사랑하는 장로들과 성도들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냐, 현재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냐,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다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자리걸음 하며 산 40년의 세월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애굽 땅의 종 되었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지키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리고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과거의 너희 신분과 모습을 기억함으로 늘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103:2).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관데

언제인가 신학교 졸업식을 88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다. 그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날은 ‘내가 무엇이관데 이런 은혜를 받아서 총회장님과 목사, 장로들과 함께 이 거룩한 단상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감격이 너무나 컸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 10월 9일 12차 평화통일 집회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신다고 총회장님께서 발표하셨다. 나는 이전에 평화통일 집회든지, 서울, 인천집회가 발표되면 항상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인천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평화통일 집회를 발표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부담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관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지, 나의 작은 힘이 이 나라의 평화통일에 힘이 되어지고 보탬이 되어진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어떤 나라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초창기에는 언제나 환란과 핍박과 기근과 칼의 위협이 있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본인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조차 잃어버렸다. 그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불 속에, 사자 굴에 들어가고, 배고픔과 칼의 위협에도 감사하며 죽을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주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알 때 감사하

며 순종하는 것이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한다. 싸우려 하지 않고 그저 도망할 뿐이었다. 다윗이 누구인가?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숨어 있을 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아들과 전쟁할 수 없으니 나라와 백성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심지어 저주하는데도 그저 도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편을 보면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소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노래한다. 다윗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은혜에 감사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는 말이 있다. 또 총회장님 잠언 중에도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취도 은혜를 잊지 말라.” 하셨다.

이번 평화통일 집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 세상을 위하여 힘을 쓰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기회요,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 내게 주신 감사의 시간이다.

장영국 목사

어라! 노란 수박도 있네?

“이게 뭐지?” 오전 주일에배를 마치고 나면 내게 식사를 준비해주는 김 권사에게 물었다. “목사님, 그게 수박이예요. 요새 같이 노란 수박이 나왔어요.”, “그래? 이게 수박이라고? 참 세상 좋아졌다.” 나는 수박이라면 같이 초록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노란 수박도 있다니... “목사님, 네모난 수박도 있어요.” 노란 수박을 신기해하는 나를 보고 김 권사가 말했다. “네모난 수박도? 허~참” 이제 적어도 수박에 관한 한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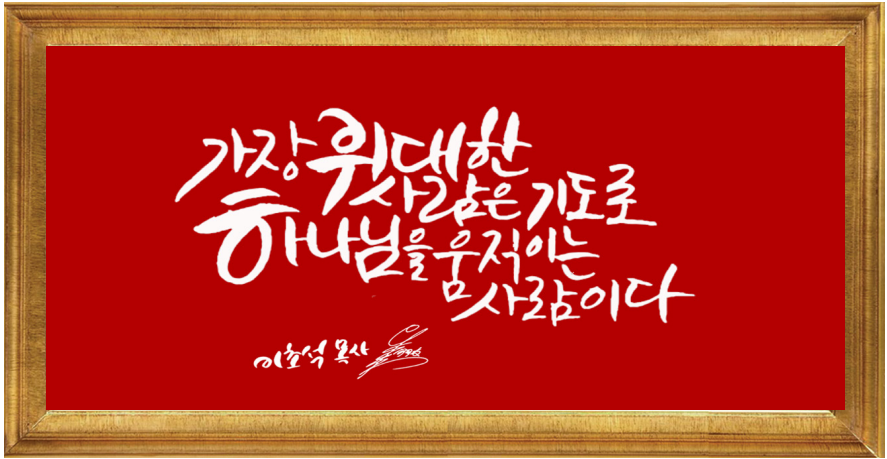
고정관념이란 말 그대로 ‘오래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자리잡은 관념이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좀 변했는가. 고정관념이 설 자리가 없을 만큼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을 수정하라고 외친다. 나는 고정관념 속에 사는 사람들을 자

주 본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아직 상투를 틀고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사람처럼 보인다. 상투를 틀고 두루마기를 입은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 거추장스러운가.

관념이란 시대적 사고다. 고로 시대가 변하면 따라 변해야 한다. 두바이를 보라.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시 두바이, 그곳에 고정관념의 틀을 깬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지 않은가. 벽을 무너뜨리기 힘들면 문을 만들라. 고정관념이라는 벽을 깨뜨리기 힘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을 열라. 그러면 통과하게 되리라.

고정관념, 그리 유익한 것이 아니니 버려라.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교단소식 ::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 더디더라도 자격증부터 따라



“나는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을 알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3일, 2024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후기 입학식을 겸한 개강 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의 일성(一聲)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막10:31)고 말씀하셨다. 자고로 성경은 ‘왜’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어떻게’라는 해결방안이 나오는 법, 목사님은 40년 목회에서 얻은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방법은 더디더라도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돈이 급하다고 막노동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더디더라도, 당장은 어렵더라도 포클레인 기

사 자격증을 따고, 지게차 기사 자격증을 따러 다니는 자가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자(前者)가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자격증만 따면 상황은 반전된다.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해도 전자는 노동자로, 후자는 기술직으로 급이 다르고 대우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당장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낫까? 아니면 돈을 빌려서라도 요리사 자격증을 따러 학원에 다니는 것이 낫까?

선교사를 꿈꾸는 자들이 많다.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망한다(잠19:2). 그것은 마치 화로 없는 불과 같아 위험할 뿐이다.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먼저 자격증을 따야 한다.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 능통해야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속성이나 문화를 아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나는 몽골이나 중국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라’, ‘하루 7시간씩 공부

해라’, ‘한국 사람을 만나지 말고 현지인만 상대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선교사로 파송된다면 이는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꼴이 아니겠나.

여러분이 3년 동안 이 예수중심제자신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함이다. 자격증이 그냥 주어지던가? 철저히 준비하여 그만한 실력과 자격을 갖추는 때 자격증이 주어진다. 하나님과 성도에게 합격점을 받아야 자격증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통달하여 어디서든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임계점을 넘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하고, 셋째는 다방면에 지식을 함양하여 능수능란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는 인격도야로 성도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치고(딤후2:24),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무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딤후2:21).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 합법적인 자격증을 얻게 된다(롬14:18). 엘리야를 따르던 50인의 생도가 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다. 그만큼 자격증 취득

은 쉽지 않은 것이니 항상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3년이면 족하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셨고, 느브갓네살 왕도 포로된 자들 중에 출중한 자를 택해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고위직에 배치했다. 3년이면 충분히 연장에도 길이 드는 법,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길이 잘 든 연장이 되도록 이 3년 동안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 자격증을 취득해라.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것을 결단한 것처럼, 기필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격증을 따고야 말리라 오늘 결단하라. 나는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깨닫지 못하는 자다. 깨닫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다시 말한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은 더디더라도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부디 2시간이 다 되도록 힘써 전하신 이 말씀을 심비에 새기고, 전심을 다해 만반의 준비에 힘써 모두가 자격증을 소유하는 신학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신묘수 전도사

:: 성도간증 ::

:: 신앙에세이 ::

기도와 말씀은 우리 삶의 기반 시설이다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던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핑계로 주일예배와 금요철야예배만 드리던 어느 날(2001년),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 동일한 꿈으로 계시해주셨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 다. 갑자기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닥쳐서야 급히 부랴부랴 시편 35편 13절,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 차례 금식하며 부지런히 기도하여 다시 예전의 부르짖는 기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찾으면 당연히 가정도 회복될 줄 알았지만, 더 깊은 구렁에 빠지고 남편과의 관계는 무너질 대로 무너질 때쯤에 아이 아빠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광주교회로 내려갔지만, 한 번 떨어진 우리 관계는 회복되질 않았습니 다. 이후 아이 아빠는 교회를 나가고, 저는 20개월 된 아들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기도(40일)를 해야 한다는 마음에 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광주의 최권능 목사님께서 광주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셔서 아이랑 광주로 갔습니 다. 솔직히 아이 아빠가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나간 곳으로 다시 들어가려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금광석같이 단단하게 만드셔서 부끄러움을 모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안영순 집사님께서 비어있는 아파트를 제공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님들과 광주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생활하며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최권능 목사님께서, “말씀을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 “시편을 읽어라.” “말씀은 암도 녹인다.” “말씀만이 능력이다.” 하시며 계속 말씀 읽을 것을 권면해주셨지만, 기도는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내 앞에 무언가 견고한 벽이 쳐져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 다. 하루하루 곤고했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길 바랐고 이해해주기만을 바랐습니 다. 그러나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되었지만 그때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침체를 반복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다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찬양을 해라. 시편을 읽다가 말씀이 내 마음에 닿으면 아멘 하고 내 마음속의 자갈을 내버리고 옥토를 만들어라.” 그러던 어느 날 괴로움이 너무 심해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 다. 시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 울며, “아멘. 아멘” 하면서 4시간에 걸쳐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읽다 지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꿈에 포클레인이 와서 땅을 깊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깊이 파고 난 구덩이에서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사람의 얼

굴이었고, 몸은 뱀의 몸이었는데 꼬리가 얼마나 길던지 끝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길었으며 기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흰옷을 입은 이초석 목사님과 최권능 목사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저 뱀을 잡아야 우리가 상을 받는다.” 하시는데 그때 잠에서 깼습니 다. 저 뱀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와서 우리 가정을 깨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득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 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8:44). 마귀는 천사의 얼굴로 가장하고 다정하게, 달콤하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를 잃지 말라.’, ‘매일 귀신을 쫓아라.’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설마 이것도 귀신이 한 걸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귀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지만, 마귀가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는 우리 삶의 기반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늘 깨어 기도하고, 모래알보다 많은 귀신을 매일 내어쫓아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할렐루야!

횡성예수중심교회 박매숙 전도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치매 발병 전 나타나는 경도 인지장애는?

경도 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인지기능이 정상 노화 단계보다 더 저하된 상태이지만 치매로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기억력, 언어, 주의력, 문제해결력에서 저하가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경도 인지장애(MCI)의 증상으로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지만 복잡한 일을 수행하기 어려워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로 인해 우울,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인지기능의 저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MCI)에서는 치매로 진행

될 위험이 있지만, 모두가 치매로 발전하지는 않으며 일부의 경우는 상태가 안정되거나 도리어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도 인지장애(MCI)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식단으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곡물, 생선, 올리브유를 많이 포함하며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을 최소로 섭취합니다. 오메가3, 항산화제, 비타민E, B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걷기, 수영 등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며 주 3~5회, 30분 이상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뇌 자극 활동으로 독서, 퍼즐, 악기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은 뇌의 신

경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으로 하루 7~8시간의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추가로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과 절주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제로는 구기자, 산수유, 석창포, 원지, 인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에서 부정적인 마음과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습관은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

Dr. 설재현 집사

기도의 119

어릴 적 우리 집은 종교가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엄마는 불교, 아빠는 천주교라 했지만,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오히려 무속 신앙에 가까웠다. 집에 부적도 있고, 굿을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돌아가실 뻔하시다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 안수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셨다. 이후 갓 태어난 동생도 죽거나 장애를 가질 뻔했지만, 또 안수 기도를 받고 낫는 기적을 체험한 후 우리 가족은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나는 해외 유학 시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독립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해외에서 우울감으로 힘들 때 전화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정신을 차리기도 했었다. 20대 때는 교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였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 편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기에 갈등이 생길 일도, 시험에 들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라 깨닫게 되었다. 감사와 은혜는 어디든 참여한 만큼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든든한 내 마음이 있는 것과 같았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과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이었다. 평탄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이 복인지를 모른다. 그러나 삶 속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거나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된다. 부모님의 기도는 간절하고, 주의 종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일단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하지만, 불이 견잡을 수 없이 번질 땐 소방차가 오면 해결이 되는 것과 같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119를 누르면 전화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 박찬영 집사 cross35@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개강

9월 24일(화)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